

趣旨書

[韓國近代名論說集] (1979년)에서 발췌

國民大會準備會

천하의 公道와 인류의 정의는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회를 약속하였으니 망국의 한을 품은 채 忍從과 굴욕의 악몽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광명의 새날을 위하여 진군하라는 巨鍾은 드디어 울었다. 필경 울고야 말았다. 懊悶과 怨淚로 점철된 과거를 회고할 때 혹은 鐵窓에서 혹은 해외에서 동지의 義血은 얼마나 흘렸으며 선배의 苦鬪는 얼마나 쌓였던가. 우리에게 이 날이 있음은 진실로 苦節 三十有六年 동안 누적한 희생의 所産이며 전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싸우던 우방의 후의로 困함이니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이 날을 同慶치 못할 우리 在天의 명령을 추도치 않을 수 없으며 聯合諸國의 의거에 대하여 滿腔의 사의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 울적하고 압축되었던 潛力이 순간에 폭발되고 일시에 반발하는지라 衝天하는 意氣 저절로 常道와 正軌를 벗어나게 됨은 이 또한 자연이니 勢固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광복의 대중은 遙遠하고도 착잡한지라 그러므로 하여서 더욱이 先後緩急의 질서는 절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대의명분의 旗幟는 선명하여야 할 것이다. 강토는 잃었다 하더라도 삼천만 민중의 心中에 응집된 國魂의 表象은 庚戌國變 이래로 亡命志士의 氣魂과 함께 해외에 儼存하였던 바이나 오늘날 日本의 정권이 퇴각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에 代位될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국가대표는 己未獨立 이후로 具現된 大韓臨時政府가 최고요 유일의 존재일 것이다. 派黨과 色別을 초월하여서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歸一함이 現下의 내외정세에 타당한 대의명분이니 舊政의 殘滓가 尙存한 작금에 있어서 우리 전국민의 당면한 관심사는 우선 국민의 總意로써 우리 在重慶 大韓臨時政府의 支持를 선서할 것. 국민의 總意로써 聯合 各國에 謝意를 표명할 것. 국민의 總意로써 民政수습의 방도를 강구할 것 등이다. 政體 政黨의 시비론도 이후의 일이며 정강정책의 가부론도 이후의 일이니 이리하여야 비로소 우리 大業의 巨步는 정정당당할 것이다. 이에 越하나마 同憂의 責을 自負하는 발기인 일동은 聯合軍의 정식 주둔과 日軍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국민 總意의 所在를 聲明할 필요를 느끼며

아울러 總意집결의 方法으로서 國民大會의 發會를 준비하는 바이니 現下의 실정은 만사가 임시적 편법이라 名實이 相符할 최선의 方法이 있을 수 없거니와 우리의 意圖와 우리의 業원은 次善 三善일지라도 철두철미 대의명분의 지표를 고수하고 이를 구명코자 함에 있다. 滿天下의 동포여, 國家재건의 제일보를 위하여 國民總意의 기치하에 삼천만 민중의 心魂을 凝結하라. 그리하여 현재와 미래 永劫에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期하라.

1945년 9월 7일